

다는 첩보에 따라 이 부분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. 검찰은 도매법인들이 이런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국회나 관련 정부부처에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.

검찰은 이와 함께 도매법인들이 경매가격을 조작해 부당이득을 얻거나 중매인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받는 행위, 비상장 농수산물을 경매를 거친 것처럼 꾸며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 등 유통시장의 전반적인 부조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.

여중생에 음란전화

성폭력법적용 영장

94.5.14

여중생에게 음란전화를 건 30대 학원장에게 지난달 1일 발효된 성폭력특별법이 처음 적용됐다. 서

울 강동경찰서는 13일 가정집에 전화를 걸어 여중생에게 음담패설을 한 이의동(38·학원 운영)씨에 대해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.

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이아무개(14·초3)양 집에 전화를 걸어 10여분 동안 성행위를 묘사하는 음담패설을 한 뒤 이양을 불러내 만나려 했다는 것이다. 지금까지는 음란전화를 걸었을 경우 경범죄 위반으로 벌금을 물리는 데 그쳤다.